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통해 본 이슬람의 '정의(adl)' 이해

- 하마스의 지하드(Jihad)를 중심으로 -

정상률¹

1. 서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고대 가나안 지역) 내 유대인과 아랍인(팔레스타인인, 또는 팔레스타인 아랍인) 간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을 해 왔다. 팔 지역에서의 갈등과 전쟁은 오랜 역사성과 다양한 원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전쟁이 이슬람 또는 무슬림의 입장에서 정의(正義)로운 것인가?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과 유대인 간 갈등은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880년대에 프랑스의 드레뤼스 사건, 러시아의 짜르2세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가 부상하면서 유대인이 동서 유럽에서 탄압과 차별을 받게 되었다. 위 두 사건은 인종주의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부상하면서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유대인 민족주의)을 구상하고,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유대인의 이주와 국가건설, 4차에 걸친 이스라엘-아랍국가 간 전쟁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PLO의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와 무슬림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 및 하마스의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을 대 이스라엘 투쟁의 이념으로 설정했다. 특히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독립투쟁을 해온 PLO를 비판하는 일부 지식인들은 정치이슬람을 새로운 국가건설 이념으로 설정하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대이스라엘 독립투쟁의 양대 세력인 PLO와 하마스의 무장독립투쟁은 정당한가? 정의의 전쟁인가? 본 글에서 필자는 '이슬람 교리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팔레스타인인들의 대표적인 정치이슬람 세력인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투쟁이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한국외국어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II. 전쟁에서의 이슬람 '정의(adl)'

하마스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는 정치이슬람 세력이다. 하마스는 1988.8.18. 발표된 하마스 헌장(총 5장 36조)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기반을 명확하게 제시해 놓았다. 하마스의 기반(basis)은 이슬람이고(제1조), 하마스는 이슬람을 생활방식으로 채택하며(제5조), 팔레스타인 무슬림형제단의 여러 산하단체(wings) 중의 하나임을 공식 선언한다(제2조). 알라가 하마스의 목표이고, 예언자(무함마드)는 하마스의 모델이며, 꾸란은 헌법이고, 지하드는 그들이 가야할 길이며, 알라를 위해 죽는 것은 가장 갈망하는 소망이다(제8조). 하마스는 유일성(Unique, 제6조)과 보편성(universality, 제7조)을 가진 운동단체이다. 하마스는 시오니스트 침략에 대항하여 지하드를 실천하고 순교자 알-카삼·무자히딘(Mujahidin)의 결합체와 연합한다. 하마스는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 공산주의와 십자군인 서구에 충성하지 않는 한 지지하며(제25조), PLO는 하마스와 가장 가까운 운동단체이고 아랍-이스라엘 갈등에서의 그 역할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지만, 하마스는 현재 또는 미래의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적 성격(Islamic nature)에 대한 PLO의 세속적 사고(secular thought)를 사용할 수 없다(제27조).

이러한 하마스의 헌장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면, 보편적 종교로서의 이슬람 뿐 아니라 하마스를 포함한 모든 정치이슬람 세력의 전쟁에서의 '정의(adl=justice)' 개념은 이슬람법, 즉 코란과 하디스의 '정의' 개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² 신의 정의(Divine Justice)는 전체 창조 행위의 기본 골격이다. 균형(balance)과 정의는 심판 날의 최종 심판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알라의 창조 명령을 디자인하는 데서도 중심 개념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는 것은 신의 정의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보상도 없고 벌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 학자들은 자유의지를 '정의의 근본(Principle of Justice)'으로 간주했다.³ 이슬람 관점에서 정의란 '어떤 것을 그것이 있어야 할 합당한 곳에 두는 것(placing something in its rightful place)'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란은 정의를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한다. 이슬람에서 정의는 도덕적 미덕(moral virtue)이며 인간성의 속성이다. 정의란 권리와 의무의 분배에 있어서 균형상태(state of equilibrium)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평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정의

2 코란에는 모순적인 내용이 동시에 있다. 하느님(Allah)께서 소망하는 것(당위, should)과 사회에서의 경험적 실재(존재, is)가 동시에 진술되어 있다. 그래서 당위와 존재의 변증법적 합은 경전의 가르침은 구체적 상황에 있는 구체적인 행위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이 그 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 규범이 적용되거나 최소한 열정적으로 그 규범에 더 깊게 되려고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코란에는 초월적 규범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란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에 대한 해석 뿐 아니라 이스라엘 대상의 '지하드'에 대한 해석도 초월적 해석, 맥락적 해석(구체적 상황에서의 해석)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3 [http://www.islamonline.net/english/introducingislam/politics/System/article03.shtml\(2007/10/10\)](http://www.islamonline.net/english/introducingislam/politics/System/article03.shtml(2007/10/10)).

란,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같이, 불평등을 통하여 성취된다.⁴

이슬람법, 즉 코란과 하디스는 '정의(adl)'에 대한 개념을 정의(definition)해 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슬람이 정의의 종교(religion of justice)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슬람 법학자인 사르카시에 의하면, '정의는 신을 믿는 것 다음으로 가장 숭고한 신앙행위'이다.⁵ 이슬람 법은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지상명령을 한 후(정의의 보편성),⁶ 인권, 여성 지위(일부다처제, 베일, 상속, 혼인과 이혼, 지참금.....),⁷ 고아에 대한 정당한 대우,⁸ 비무슬림의 지위,⁹ 범죄에 대한 정의로운 해석, 그리고 전쟁에서의 정의로운 행위(각각의 사례에서의 정의로운 행위)¹⁰ 등을 명령한다.

그렇다면 이슬람은 '전쟁에서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1400년 전에 이슬람이 창설될 때에 이슬람은 전쟁의 규칙을 정해 놓았다. 이슬람은 무슬림들이 언제,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규정해 놓았다. 코란은 먼저 공격하지 말며 공격을 받을 때, 방어로서의 전쟁을 정당화 한다. 그리고 공격자 및 비신앙자와 싸우며, 정의롭게 싸우라고 규정했다.

이슬람은 이슬람 창설 초기부터 전쟁과 적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¹¹ 이슬람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명확히 구분한다. 여성, 어린이, 노인, 허약자 같은 비전투원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수도원의 수도사와 예배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전투원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우거나 불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부상자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전쟁죄수는 살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포로도 살해해서는 안 된다. 거주지에서 약탈과 파괴 행위는 금지되며, 무슬림

4 [http://www.islamreligion.com/articles/376\(2007/10/10\)](http://www.islamreligion.com/articles/376(2007/10/10)).

5 Shams al-Din Sarkhasi, al-Mabsut, vol 14, 59-60. [http://www.islamreligion.com/articles/376\(2007/10/10\)에서](http://www.islamreligion.com/articles/376(2007/10/10)에서) 재인용.

6 정의의 보편성을 언급한 코란 부분은 다음과 같다. Quran 4:58, 105, 135; 5:8, 42; 6:115, 152; 16:90; 42:15; 49:9; 57:25; [http://www.islam-guide.com/ch3-12.htm\(2007/10/15\)](http://www.islam-guide.com/ch3-12.htm(2007/10/15)). 정의의 보편성을 언급한 몇 가지 코란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http://www.islam-guide.com/ch3-12.htm#footnote5\(2007/10/15\)](http://www.islam-guide.com/ch3-12.htm#footnote5(2007/10/15)).

진정으로 신은 (정의로운) 대우를 받을만한 사람에게 신뢰(trusts)를 되돌려 줄 것을 명령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정의롭게 판단하라(to judge with justice)....(Quran, 4:58).

....그리고 정의롭게(justly) 행동하라. 진정으로 신은 정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신다(Quran, 49:9).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너희가 정의를 피하게 만들게 하지 마라. 정의롭게 행동하라 (be just): 그것이 신앙(piety)에 더 가까우니라....(Quran, 5:8).

사람들이, 부정의(injustice)를 주의하라. 왜냐하면 부정의는 심판날에 암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7 Quran 2:187, 221, 222, 228, 229, 230, 241; 3:3; 4:3; 4:11, 15, 16, 22, 23, 24; 24:2, 3, 4, 6, 7, 31, 60

8 Quran 6:152; 89:17; 93:9; 107:2

9 Quran 60:5

10 Quran 2:190("너희에게 적대하여 싸우는 자들과 싸워라. 그러나 먼저 적대행위를 시작하지 마라.")

11 [http://www.islamonline.net/english/introducingislam/politics/System/article02.shtml\(2007/10/15\)](http://www.islamonline.net/english/introducingislam/politics/System/article02.shtml(2007/10/15)).

들은 적대하여 싸운 사람들 이외에 어떠한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무슬림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정복지의 일반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것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적의 시신을 불 명예롭게 한다던가 절단해서는 안 되며,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계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적이 이미 공격을 시작하지 않는 한, 무슬림들은 적에 대한 적합한 전쟁 선언 없이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¹²

‘전쟁에서의 이슬람 정의’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지하드(Jihad, 聖戰)이다. 지하드란 용어의 아랍어 원뜻은 ‘노력, 시도, 애씀’ 또는 ‘투쟁하다, 전력을 다하다, 싸우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하드는 무슬림 개개인이 맡은 일정한 임무나 과제를 성심성의껏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의 법학상 의미는 ‘신의 길,’ 즉 정의의 길로서 이슬람 법이 규정한 의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슬림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따라서 지하드는 신자 개개인이 첫째, 악을 제거하고 신의 말씀을 보급하는데 노력하고(대지하드), 둘째, 이슬람지역을 침범하는 적에 대항하여 몸을 바치고, 무력을 사용하는 종교적, 법적 의무(소지하드, ‘칼의 지하드’)이다. 대지하드는 자신 내부의 악마적인 성향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이슬람과 움마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비신앙자를 개종시키려 노력하거나 사회를 이슬람적으로 변혁시키거나 이슬람 사회를 도덕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다(‘희의 지하드,’ ‘뎨의 지하드’). 소지하드는 ‘칼의 지하드’라고도 하며, ‘십자군(crusade) 전쟁’과 같은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다.¹⁴ 본래 지하드는 이슬람 이전의 북부 아랍의 부족 간 전쟁에서 유래했으나, 이슬람 창설 이후 종교적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코란의 많은 구절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소유물과 생명(bi-amwalihim wa-anfusihim)을 다해서 싸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대신에 지하드에서 사망한 사람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으나,¹⁵ 싸우지 않은 사람은 저승에서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¹⁶ 그 외에도 군복무 면제,¹⁷ 라마단 성월 기간의 지하드,¹⁸ 성 메카에서의 지하드,¹⁹ 전쟁 죄수들의 운명,²⁰ 안전한 행동(safe conduct)²¹과 협정²²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

12 위와 같은 전쟁 죄수나 포로에 대한 규정은 ‘아프간 한국인 피랍인질 사건’에서 탈레반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당시 이슬람세계의 여론은 탈레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한국인 피랍인질들이 전쟁 죄수도 아닐 뿐 아니라 봉사자들(aid workers)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명을 살해함으로써 탈레반은 ‘이슬람의 정의를 위한 반이슬람 행위를 한 것이다.’

13 Quran 61:11.

14 Rudolph Peters, Jihad: *In Classical and Modern Islam*(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1996), 1.

15 Quran 3:153-158, 169-172. 지하드를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사망한 무자히드(Mujahid, 전사)는 샤희드(Shahid, 순교자)의 칭호를 받으며, 알-잔나(al-Jannah, 천국)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16 Quran 9:81-81, 48:16.

17 Quran 9:91, 48:17.

18 Quran 2:217.

19 Quran 2:191.

다.²³ 이슬람은 전쟁 또는 지하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칙 7가지, 즉 지하드에 종사할 의무가 있는 인물의 합법적인 자질(후꿈)과 행동, 적, 다른 범주의 적에게 가할 수 있게 허락된 손실(적의 종류에 따라 적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가 다름), 전쟁의 선행조건, 한 명이 최대로 싸워야 하는 적군의 수, 휴전, 전투의 목적을 규정해 놓고 있다.²⁴

코란이 무슬림들에게 단지 비신양인이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어로만 싸우도록 허용했는지, 아니면 모든 상황, 예컨대 비무슬림이지만 신앙인인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과도 싸우도록 허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코란의 구절들로 보아, 먼저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 저항하여 싸우는 것이나 비신양자(불신자)를 배신하는 것으로서의 싸움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너와 싸우는 사람과 신의 방식대로 싸워라. 그러나 (먼저) 공격은 하지 마라. 신은 공격자를 사랑하지 않는다.”²⁵ “그러나 맹세를 한 후에 서약을 깨고 너의 종교를 공격한다면, 비신양자의 우두머리와 싸워라.”²⁶

비신양인과의 전쟁은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하디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선지자는 사령관을 군대나 원정에 파견하기 위해 임명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한다: “.....네가 이교도인 적을 만난다면 그들을 세 가지 것에 초대해라. 그들이 동의하면 받아들이고 그들과 싸우는 것을 그만 두어라. 그들이 무슬림이 되도록 초대해라. 그들이 동의하면 그들의 전향을 받아들여라. 이 경우 그들의 영토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도록 초대하여라. 그들이 무슬림 배두인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른 무슬림들과 함께 싸웠을 경우에만 전리품을 공유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라. 만약 전향을 거절하면 인두세를 내라고 요구해라. 동의한다면 그들의 굴복을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들이 거절한다면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싸워라.....” (Sahih Muslim)²⁷

하디스(Hadith)는 비신양인과 싸우는 목적을 간결하게 전향과 굴복으로 요약했다. 굴복시키는 경우, 적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고수하지만 인두세(jizya)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슬람은 전쟁 죄수(prisoners of war)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슬람은, 포로의 몸값으로 돈을 제공하거나 같은 수의 무슬림 포로를 석방할 수 없을 경우에도, 무슬림들이 적의

20 Quran 47:4.

21 Quran 9:6.

22 Quran 8:61.

23 Peters(1996), 2.

24 Peters(1996), 29-42.

25 Quran 2:190.

26 Quran 9:12.

27 Peters(1996), 4.

포로를 풀어줄 것을 명령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쟁 죄수를 굴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은 인간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성적, 감정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서도 안 된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 의복 뿐 아니라 위생상의 편의와 건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여름의 태양으로부터 전쟁 죄수들을 보호하고 마실 물을 줄 것을 지시했다. 전쟁 죄수는 이슬람을 배우도록 초대 받지만, 어떠한 강요도 해서는 안 된다.²⁸

다르 알 이슬람(*dar al-Islam*, 이슬람의 집)은 이슬람법과 정의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지역이고, 다르 알 하룹(*dar al-Harb*, 전쟁의 집. 비무슬림 지역, 서방에 의존하는 정통성이 약한 권위주의적 정권)은 지하드의 대상이다. 수니와 시아의 지하드 이론은 유사하나, 시아파(12이맘파)는 권위 있는 이맘의 지도하에서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코란과 하디스에 기초하여 '전쟁에서의 이슬람의 정의'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슬람법은 무슬림들에게 '정의롭게 행동하라' 고 명령한다. 이러한 명령은 전쟁 시에도 지켜져야 한다.
2.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마라. 그러나 적 또는 '비무슬림 지역(*dar al-harb*),' 즉 이교도의 '이슬람 세계(*dar al-Islam*)' 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지하드를 행하라고 명령한다.
3. 비전투원인 노약자, 여성, 어린이의 인권 뿐 아니라 전쟁 죄수의 인권도 보호해 줌으로써 정의를 실천하라고 명령한다.

III. 하마스의 탄생 및 무장독립투쟁과 이슬람 '정의'

1. 팔레스타인 무슬림형제단의 대지하드

팔레스타인에서 정치이슬람은 유대인-아랍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탄생했다. 알-아프가니(Jamal al-in al-fghani, 1838-97), 무함마드 압두(Mohammad Abduh, 1849-1905), 라쉬드 리다(Rashid Rida, 1865-1935)와 같은 이슬람 근대주의자들(Islamic modernists)의 영향을 받은 알-카삼(Sheikh Mohammad Izz ad-Din bin Abdul Qadar bin Mustafa al-Qassam, 1882-1935)은 팔레스타인 최초의 살라피야(Salafiyya) 근대주의 이슬람 지도자가 되었다. 팔레스타인 최초 정치이슬람 지도자가 된 것이다. 알-카삼이 대영 투쟁 중 사망한 이후 정치이슬람 세력은 약화되었으나, 1928년 이집트 이스마일리아(Ismailiyya)에서 창설된 무슬림형제단

28 [http://www.islamonline.net/english/introducingislam/politics/System/article05_shtml\(2007/10/15\)](http://www.islamonline.net/english/introducingislam/politics/System/article05_shtml(2007/10/15)).

29 무슬림형제단은 1930년대 중반부터 점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수단, 쿠웨이트, 예멘,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에 지부를 설립했고, 1945년에는 팔레스타인에도 지부를 설립했다.

이 1935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부상했다.²⁹ 1945년 알-반나는 자신의 동생 아베드 알-라흐만 알-반나(Abd al-Rahman al-Banna)를 팔레스타인에 보내서 예루살렘 지부를 설립했다. 그 후 이집트 본부의 지원으로 1947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25개의 지부가 조직되었고 12,000 내지 20,000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초기에는 이슬람도덕과 선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순수한 종교적, 박애주의적 단체로 출발했다. 형제단은 설립 초기에 도덕개혁을 강조했고,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슬람적 접근법이나 방법론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랍세계는 유럽의 영향을 받는 세력과³⁰ 칼리파제 재건 세력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기간에 무슬림형제단은 아랍군으로서의 역할, 즉 지하드를 실행했고, 가자지역을 중심으로 범아랍 활동을 확대했다. 그러나 1948년 중동전쟁에서 아랍 측이 패배한 후, 이집트가 가자지역을, 요르단이 동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이들 국가의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통치방식의 차이로 각 지역에서의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영역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³¹ 팔레스타인 가자의 야신은 무슬림형제단의 행동단체인 이슬람의회를 창설하고, 1973년에 '알-무자마 알-이슬라미(al-Mujamma al-Islami = the Islamic Center)'를 창립하였으며, 1978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슬람센터가 1987년 12월에 발생한 인티파다 직후에 설립된 하마스(Hamas)의 전신이었다.

무슬림형제단의 기본이념은 ①정치(국가)와 종교의 불가분리성, ②칼리파제와 같은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건설이다. 따라서 무슬림형제단의 이념은 당시 영국의 위임통치정부, 전통적 울라마 세력을 대변하는 무프티인 알-후세이니(제도 이슬람 세력), 그리고 좀 더 세속적 전통주의 세력이었던 다른 유력 가문들의 이념적 지향과는 달랐다. 팔레스타인의 무슬림형제단은 이스라엘의 건국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기반으로 형성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이슬람 세계가 항복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서구의 경제적인 제국주의가 이슬람 세계를 포위하기 위해 과전된 전위대로서 압과 같은 존재이며,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일련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이들 아랍국가들이 이슬람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1967년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점령이후 무슬림형제단은 소위 '이슬람 세대'의 교육에 주력했다. 무슬림형제단은 팔레스타인에 이슬람 국가의 창건을 목표로 하였지만 먼저 이를 위한 정치조직의 결성과 발전 그리고 사회개혁을 우선했다. 이슬람 가치관이 모든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성숙되고 이슬람 국가 창건의 성

30 Salamah Musa, Taha Husayn은 공개적으로 세속주의 아이디어를 선전했고, 알-아즈하르 대학의 일부 학자들도 이슬람문제를 해석할 때 서구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31 이집트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이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지하조직화 되었으나, 요르단에서는 정치·행정에서 직접 간여하는 직위를 부여받았다.

공을 담보할 때까지 무슬림의 지하드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학교와 자선단체 설립 등 각종 사회복지 사업에 주력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운동보다는 교육과 사회개혁을 통한 이슬람 사회건설을 우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건설과 이슬람 교육 등 이러한 비정치적인 활동은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민족 저항 운동세력이었던 PLO의 적극적인 무장항쟁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PLO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지가 지배적인 분위기 하에서 무슬림형제단이 점차 활기를 띠고 그 세력을 확대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 1973년 욘 키푸르 전쟁(제4차 중동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인구는 급속히 증가했는데 경제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계층 간의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이러한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었다.

이스라엘 국민들에 비해 심각한 경제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가자지구의 난민촌 주민들은 무슬림형제단의 사회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의 사회 평등사상에 공감하였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PLO와는 달리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증대할 수밖에 없었다. PLO가 부정부패한 조직으로 비난을 받고 있던 당시, 형제단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슬람 지도자들은 비교적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로 지역 주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짧은 기간에 무슬림형제단의 통제 하에 있던 종교단체와 기관들(가자의 이슬람대학교를 포함하여)이 이슬람센터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슬람센터는 가자지구 무슬림형제단 활동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게 되자, 오일 달러를 벌어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과 국제 이슬람 기구들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대한 원조를 급격하게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러한 지원금과 무슬림들의 헌금(Zakat)을 이용하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구제와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탁아소, 유치원, 그리고 각급 학교에 등록하여 혜택을 받았으며, 국내외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무슬림형제단은 또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각종 이슬람 단체의 재단(waqf)을 점차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슬림형제단이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이스라엘 점령 이후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스크였다. 아부 암르(Ziad Abu-Amr)는 1967년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400개였던 모스크가 1987년 750개로 늘었고, 가자지구는 200개에서 600개로 늘었다고 주장한다.³² 모스크는 이렇게 무슬림형제단이 이스라엘 당국의 방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유

32 이스라엘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가자지구의 모스크 숫자는 1967년 77개에서 1985년 155개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Ifrah Zilberman, 1996, "The Development of the Extreme Islam in the Occupied Territories since 1967," in Moshe Maoz [Ed.], *The Palestinian National Movement: From Confrontation to Reconciliation, the Ministry of Defense, Israel*(1996), 331 참조.

용한 공간과 수단이 되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틀 모스크에서 정오와 저녁 기도 후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모스크에서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지자를 충원하였다. 1967년 이후 많은 모스크가 건축되었으며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성직자와 직원들을 무슬림형제단에서 충원하였다. 1970년대 말까지 무슬림형제단은 온건 단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큰 갈등이 없었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무슬림형제단 운동을 고무시켰으며, 급진적인 이슬람 혁명과 이슬람 국가 창건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었다. 이란 이슬람혁명의 영향을 받은 무슬림형제단 내 일부 강경파들이 1981년 당시 온건했던 무슬림형제단을 탈퇴하여 대 이스라엘 투쟁에서 좀 더 과격한 노선을 지향하는 《이슬람지하드》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무슬림형제단과 이슬람지하드는 모두 팔레스타인 땅이 무슬림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 어떤 조건하에서도 이 땅의 분리와 양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땅의 일부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립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들에게 이 땅이 팔레스타인 민족, 또는 어느 한 아랍국가의 영토가 아니라 이슬람 전체의 재산이며 성지라고 주장한다. 진정한 무슬림은 이 '성지' 한 치의 해방을 위해 생명과 돈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이슬람 단체 간의 차이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중심성, 이 땅의 해방을 위한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였다. 무슬림형제단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의 이슬람적 변혁을 우선시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개혁 없이, 세속사상을 포기하고 이슬람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하드(Jihad)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슬람지하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인이 다수인 유대국가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사회의 이슬람화와 이슬람적 개혁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먼저 무슬림이 다수인 이슬람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창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 이스라엘 지하드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 공격 등 자신을 희생하는 모범을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보이면서 그들을 깨워서 이란에서와 같은 대대적인 민중 봉기를 통해 대 이스라엘 지하드(聖戰)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2. 하마스 탄생 및 아팔 평화과정(peace process)과 하마스의 소지하드

1987년 12월 8일 하나의 교통사건으로³⁴ 인티파다가 촉발된 지 2개월 20여일 후인 1988년 2월 말, 팔레스타인 무슬림형제단의 지도자 야신(Shaikh Ahmad Yasin)과 다른 6명의 지도자

33 Zilberman, 1996 참조.

1970년대 말까지 무슬림형제단이 사회의 이슬람적 변혁을 우선시 했다는 것은 소지하드(칼의 성전) 보다는 대지하드(펜의 성전)를 우선 시 했음을 의미한다.

34 인티파다는 하나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 12월 8일 가자에서 이스라엘 트럭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내어 팔레스타인 근로자 4명이 사망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 교통사고가 의도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낸 운전사의 친척이 그 교통사고 이틀 전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고를 내고 4명의

들이 하마스를 설립했다.³⁵ 아흐메드 야신이 형제단의 하부 투쟁조직으로 하마스란 단체를 결성하면서 팔레스타인 민족운동의 주도 세력이었던 PLO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부상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대중들의 대이스라엘 강경 입장을 대변하고 격렬한 대 이스라엘 무장 항쟁을 주도하면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특히 가자지구에서 PLO 내의 최대 정당인 파타(Fatah)와 쌍벽을 이루는 정치 운동조직으로 성장했다. 즉 하마스의 출현은 팔레스타인 정치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마스가 설립된 직후부터 하마스와 PLO의 군사조직 간에 선진전이 시작되었다. 아라파트는 이스라엘이 PLO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마스 설립을 도와주었다고 비난했다. 오슬로 협상 기간 동안에 아라파트의 경계고문 역할을 했던 코아쉬(Mohammed Abu Koash) 박사는 하마스운동과 이스라엘을 연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우리(PLO)와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하마스 단체를 설립했다.....그러나 하마스가 너무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협상 대상으로 하마스와 우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했다.”³⁶ PLO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마스에게 정당성과 일정한 지위를 부여했다는 주장이다. 이스라엘 정책결정자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하드 목표를 가진 이슬람주의자 조직으로 남기보다는 사회 개혁을 위한 온건 이슬람운동 조직으로 남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1989년 4월에 발생한 두 명의 이스라엘군 살해사건에 하마스 지도자와 활동가가 개입했다는 이스라엘 측의 판단에 따라 1989년 중반부터 극적으로 변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슬람 지하드’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하마스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마스 지도자 야신과 자하르(Mahmoud Zahar)를 포함하여 300여명을 체포했다.³⁷

인티파다 발생 후 한 달 동안 이슬람지하드(Islamic Jihad)는 민족주의자 그룹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들을 동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파시 쉬카기(Fathi Shqaqi), шей흐 압드 알-아지즈 아우다(Sheikh Abd al-Aziz Auda)를 포함한 많은 이슬람지하드 지도자들을 국외추방하고, 투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부상한 조직이 하마스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했고 이들의 시위는 순식간에 요르단 강 서안지구로 번져나갔다. 바로 그 다음날 가자의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인 민중시위로 연결시키기 위해 회동했다. 무자바 알-이슬라미(이슬람센터)의 지도자 아흐메드 야신의 집에서 이 단체 지도자 7명이 모였다. 이 모임은 이후 인티파다가 확대되면서 정기적인 모임이 되었고, 결국 하마스로 발전했다.

35 하마스는 아랍어 Harakat al-Muqawama al-Islamiyya(= Movement of Islamic Resistance)의 약자로서 ‘이슬람 저항운동’을 의미한다. 1988년 8월에 발표된 규약에서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의 하나의 팔레스타인 지부(a wing of the Muslim Brotherhood in Palestine)’라고 밝히고 있다. 하마스 초기의 조직은 정치국, 정보수집국, 군사국(al-Qassam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구성되었다.

36 PASSIA 1999, 42.

37 Beverly Milton-Edwards, *Islamic Politics in Palestine*(New york: I.B.Tauris, 1999), 151-153.

다. 민족운동(national movement) 그룹은 활력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곧 PLO가 지원 하는 UNLU(United National Leadership of the Uprising)의 보호 아래 조직되었다.³⁸ 하마스과 민족운동 그룹은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 8월의 걸프 위기는 하마스-UNLU 관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 8월 12일에 발표된 하마스의 광고전단은 미군과 연합군을 비난했고, 그 몇 주 후 발표된 전단 64(leaflets 64)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미국 및 연합군과 후세인 양쪽을 비난한 것이다. 반면에 PLO는 후세인의 반서구 운동을 지지하고, 후세인의 쿠웨이트 지배를 이스라엘의 가자, 서안 지배와 연계시켰다. 이러한 시각 차이로 1990년 9월 경에는 서안의 툭카람(Tulkaram) 난민캠프와 예닌, 가자의 일부 지역에서 하마스과 PLO 지지자들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1990년 9월 말에 양대 정파 지도자들이 13개 협력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 직후에 나블루스의 하마스 지지자들이 민족주의 진영의 알-마스리(Nihad al-Masri) 박사를 공격함으로써 협력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990년 10월 8일에는 알-아크사 사원에서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팔아랍인 17명의 사망자와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터졌다. 한편 PLO는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PLO에 제공해왔던 매달 2,800만 달러의 지원을 하마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하마스는 자카트 위원회(Zakat committees)를 통하여 계속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하마스과 PLO의 경쟁에서 하마스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1991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회담 개최 제안을 둘러싸고 민족주의 세력과 정치이슬람 세력 간에 논쟁이 격화되었다.³⁹ 하마스과 PFLP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두 조직은 연합할 수 있었다. 1992년 봄, 가자지역에서는 하마스과 파타 간에 평화협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무장 충돌까지 발생했다. 하마스는 알-까삼 여단(Izz ad-Din al-Qassam Brigade)의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은 물론, 팔레스타인 내 협상파를 이스라엘 협력자로 여기고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하마스는 협력자에 대한 처벌을 종교적 의무로 여겼다.⁴⁰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이스라엘은 하마스과 PLO 간의 갈등을 주시하고 소위 '사탕과 채찍' 을 통해 갈등을 조장했고, 결국에는 하마스를 배제하고 PLO를 평화과정의 협상 파트너로 선택했다.

PLO가 주도한 1990년대 평화과정에 대해 하마스 등 정치이슬람 세력들은 계속 반대하고 무

38 UNLU는 파타, PFLP, DFLP, 공산주의자를 포함했고, 민족주의자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Milton-Edwards 1999, 145).

39 1991년 10월 31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요르단(공동대표), 시리아 대표들이 참여한 마드리드 회담이 개최되었다. 1993년 8월 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표들은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11차례 걸친 비밀협상을 했다. 마드리드 협상(Madrid process) 과정에는 많은 문제들, 즉 지배지역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팔레스타인 공동체 내에서의 평화과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 이스라엘 수상 사미르(Yitzhak Shamir)의 비타협성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40 Milton-Edwards 1999, 155-157.

장 독립투쟁, 즉 지하드를 실행해 왔다. 하마스는 협상파인 PLO와 무슬림 땅의 침범자로 간주하는 이스라엘 모두에 대해 지하드를 실행하여 '이슬람 정의'를 실현하려 했다. 팔레스타인 지역 땅 전체에 이슬람국가 건설(神權 및 神政體制)을 목표로 하는 하마스의 무장투쟁 방식의 지하드(소지하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슬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3. 하마스의 집권과 이슬람 '정의' 실현의 시험기

1993년 아-팔 간에 합의한 오슬로협정에 따라 가자 지역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자치정부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망명정부의 수장 역할을 했던 의장 아라파트를 포함한 PLO 요인들이 1994년 귀향하여 국가건설에 착수했다. 1996년 초대 대통령, 초대 입법회의 선거 이후 10년만인 2006년 1월 25일, PNA, 즉 팔레스타인 임시 자치정부의 의회인 팔레스타인 입법회의 선거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지방자치 선거는 2005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대통령 선거와 입법회의 선거는 1996년 선거 이후 아-팔 갈등으로 계속 연기되어 오다가 2005년 1월 9일 대통령 선거, 2006년 1월 25일 입법회의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2005년 대선과 2006년 총선에 참여한 주요 정당과 이념적 정향을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팔레스타인 정당 및 이념적 정향

이념	주요 정당
이슬람주의 정당(Islamist)	하마스(Hamas) 또는 이슬람 저항운동(Islamic Resistance Movement = harakat al-muqawamah al-islamiyyah) ⇒ '변화와 개혁당(Change and Reform)'을 창설하여 2006년 입법회의 선거에 처음으로 참여 ⁴¹
중도파(centrist)	① 팔레스타인민족 구상(Palestinian National Initiative = al-mubadara al-wataniya al-filastiniyya) ② 제3의 길(Third way)
중도 좌파, 민족주의 정당 (centre-left, nationalist)	① 파티(Fatah) 또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Palestinian Liberation Movement = harakat al-tahrir al-filastini) ⁴² ② 알 무스타끄발(Al-Mustaqbal), 또는 미래당(The Future)
중도 좌파(centre-left)	팔레스타인 민주연맹(Palestine Democratic Union = al-ittihad al-dimuqrati al-filastini, FiDa)
좌익 정당(left-wing) 극좌 정당(far-left)	①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 al-jabhah al-sha'biyyah li-tahrir filastin) ② 팔레스타인민 투쟁전선(Palestinian Popular Struggle Front)
기타	① 와아드(Wa'ad) ② 4개의 무소속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Palestinian_legislative_election,_2006 (2006/9/10)

1996년 초대 입법회의 선거(88석) 이후 우여곡절 끝에 10년 만인 2006년 1월 실시된 PLC 선거(총 132석 중 지역구 66석, 비례대표 66석)에서 하마스가 창설한 '변화와 개혁(Change and Reform)' 이 PLO의 당인 '파타당' 45석을 훨씬 상회한 74석(지역구 45석, 비례대표 29석)을 차지함으로써 하마스 정권을 창출했다. 하마스 등 다른 정당 및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 단체들은 선거에 불참한 1996년 PLC 선거에서 파타가 88석 중 68석을 차지하여 거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었다. 2006년 선거에서는 무장 이슬람 단체(militant Islamist group)인 이슬람 지하드(Islamic Jihad)가 유권자들에게 선거 보이 을 요구하면서 불참했으나 세속적 민족주의 정당이자 운동단체인 파타와 여러 주요 정치이슬람 조직인 하마스, PFLP 등 거의 모든 정파들이 이합집산을 한 후 선거에 참여했다. 하마스 등 정치이슬람 조직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2005년 대선에서 파타당 소속 압바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2006년 입법회의 선거에서 하마스계 '변화와 개혁' 이 승리함으로써 양 정파간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06년 9월 11일에 하마스와 파타는 이스라엘이라는 적에 대항하기 위해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나 2007년 6월에 양 정치세력 간 폭력적 대결을 하는 등 내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006 총선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마스 등 기존의 무장 독립운동 조직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제도권에 진입했다. 둘째,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하마스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정권 획득에 성공했다. 셋째, 여러 조직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하여 새로운 정당을 창설하고 선거에 참여했다. 넷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었다. 다섯째, 다른 중동 아랍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선거 캠페인을 했고, 선거를 실시했다. 여섯째, 선거 직전의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파타가 하마스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일곱째, 지역구에서는 하마스가 압승했으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서는 하마스가 파타를 박빙으로 승리했다.

2006년 하마스의 승리에 대한 이스라엘, 미국, 유럽 국가들은 '테러 조직과는 대화도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갈등관계에 있다. 또한 파타계와 하마스계 간의 무력 충돌까지 빚는 등 이스라엘이라는 적전에서 내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내외적 도전에 하마스가 대응할 것인가가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창설 이후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PLO 정부에 대해

41 PLO 주도의 PA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협상에 반대했기 때문에 1996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하마스는 2006년 총선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2005년의 지방자치 선거에서 큰 성공을 함으로써 2006년 총선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42 중도-좌파-민족주의 정당인 파타는 1996년 선거에서는 88석 중 68석을 차지했었으나 2006년 선거 직전에는 전통적인 지도 세력(the Old Guard)과 다흐란(Mohammad Dahlan), 사형 선고를 받고 이스라엘 감옥에 투옥중인 바르구티(Marwan Barghout) 같은 젊은 세대의 지도자 간에 내홍을 겪었다. 젊은 세대들은 파타의 부패 척결과 내적인 지도자 선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다흐란과 바르구티는 알-무스타크발(Al-Mustaqbal = the Future)이라는 당명으로 명부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2005년 12월 28일, 신-구 양 세력은 바르구티의 지도 하에 단일 명부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폭력적 '지하드' 를 해왔지만,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상당히 온건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화와 폭력 수단이라는 양날의 '지하드' 를 통한 독립 이슬람국가 건설 이상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IV. 결론

알-카삼, 무슬림형제단,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정치이슬람 세력은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건설을 목표로 반이스라엘, 반정부(반아라파트, 반PLO) 무장투쟁을 해왔다. '정의롭게 행동하라' 는 샤리아의 지상 명령은 전쟁 시에도 지켜져야 한다. 샤리아는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마라. 그러나 적 또는 비무슬림 지역(*dar al-harb*), 즉 이교도의 이슬람 세계(*dar al-Islam*)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지하드를 행하라' 고 명령한다. 또한 비전투원인 노약자, 여성, 어린이의 인권 뿐 아니라 전쟁 죄수의 인권도 보호해 줌으로써 정의를 실천하라고 명령한다. 하마스는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해왔다. 이슬람세계를 침범한 유대인에 대해 지하드를 실행한 것은 '정의로운 전쟁'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전투원인 민간인, 여성, 어린이 등의 희생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이다. 하마스의 이슬람 '정의' 실행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마스는 창설 이전(팔레스타인 무슬림형제단)이나 이후, 그리고 2006년 입법회의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집권한 이후에도 이슬람의 '정의' 특히 '전쟁에서의 이슬람 정의' 실현을 위한 '지하드' 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Hroub, Khaled, Hamas: Political Thought and Practice, Washington D.C.: Institute for Palestine Studies, 2000.
- Milton-Edwards, Beverly, *Islamic Politics in Palestine*, New York: I.B.Tauris, 1999.
- PASSIA, *Diplomacy & Conflict Resolution in the Middle East*, Jerusalem: PASSIA Publication, 1997.
- PASSIA, *The Palestine Question in Maps 1878-2002*, PASSIA Publication, 2002.
- Rudolph Peters, *Jihad: In Classical and Modern Islam*,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1996.
- Watzal, Ludwig. Peace Enemies: *The Past and Present Conflict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PASSIA, 1999.
- Zilberman, Ifrah, "The Development of the Extreme Islam in the Occupied Territories

since 1967," in Moshe Maoz [ed.], *The Palestinian National Movement: From Confrontation to Reconciliation*, the Ministry of Defense, Jerusalem, 1996.

<http://www.islamonline.net/english/introducingislam/politics/System/article03.shtml>(2007/10/10).

<http://www.islamreligion.com/articles/376>(2007/10/10).

<http://www.islam-guide.com/ch3-12.htm>(2007/10/15).

<http://www.islam-guide.com/ch3-12.htm#footnote5>(2007/10/15).

<http://www.islamonline.net/english/introducingislam/politics/System/article02.shtml>(2007/10/15).

<http://www.islamonline.net/english/introducingislam/politics/System/article05.shtml>(2007/10/15).

http://en.wikipedia.org/wiki/Palestinian_legislative_election,_2006(2006/9/10).